

◁부산시 생태계의 핵심기능을 하고 있는 금정산범어사 일대.

“금정산 범어사 일대 부산시 생태계의 핵”

부산발전연, 자연환경조사 중간보고

경부고속철 관통 공사로 심각한 훼손 위기에 처해 있는 부산의 금정산 범어사 일대가 부산시 생태계의 핵이라는 조사보고가 나왔다. 이와 함께 자연적 보존가치가 높은 곳은 용궁사 일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6월부터 금정산, 백양산, 황령산, 장산, 불래산, 승학산, 엄

광산, 대천천, 춘천 및 해안지역 등 도심 일원을 대상으로 <부산자연환경조사 및 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을 진행해온 부산발전연구원이 1월 27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가진 중간보고회를 통해 “이번 조사에서 식생의 자연성이 가장

우수한 곳은 금정산 범어사 일대로 부산시 생태계의 핵심기능을 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도심생태계의 녹지배분, 연결성 등 생태적 고려가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용궁사·태종사 일원 자연보존 가치 높아 고속철 반대 이유 입증…건교부 태도 주목

부산발전연구원은 또 “해안의 자연경관도 사찰이 위치한 곳을 중심으로 그 보존정도가 뛰어나다. 용궁사가 있는 기장과 태종사가 있는 태종대가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부산시의 발표는 금정산을 관통하는 고속철 노선 변경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운천수 고갈, 진동 소음 등의 주제별 토론회를 여러 차례 가지며 노선변경 운동을 벌여온 시민종교대책위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크게 주목된다. 이와 관련 시민종교대책위 공동

집행위원장 범어사 도관 스님은 “부산시가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향후 노선 변경을 위한 관리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도 부산 생태계의 핵인 금정산 파괴를 막인하는 이윤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경부고속철 금정산 노선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환경을 생각하는 부산 불자연대’ 창립

천성산 고속철통과 반대 1000인 서명 회향

금정산·천성산을 지키려는 불교계의 활동이 ‘환경을 생각하는 불자들의 연대’ 창립, ‘금정산·천성산 고속철 관통반대 1000인 서명 회향’ 등의 결실을 맺고 있다. 금정산·천성산 관통반대 시민종

교대책위(공동집행위원장 지움)는 1월28일 오후 4시 부산대 효원홀에서 학계, 종교계, 언론계 등 사회 지도층 인사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1000인 서명 운동’ 회향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맑고 푸른 시민연

대 상임의장 정여스님, 윤희동 신부 등 학계, 종교계 사회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민대책위는 선언문을 통해 “고속철 관통 반대운동은 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며 “금정산과 천성산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또한 29일에는 부산불교회관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불자들의 연대(가칭)’ 발대식을 갖고 환경문제에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천미희 기자

경상북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계획

불교계 수탁방안 강구 시급

경상북도가 최근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복지 시설 증대에 나서기로 밝힌 가운데 교세에 비해 사회복지 참여 기반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지역 불교계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상북도는 올해와 내년 각각 김천과 경산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할 예정인데 곧 복지관의 운영 주체를 정하는 수탁기관 선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경상북도는 또, 올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 2백 43억여원 중 11억 6천만

원을 투입해 현재 10개소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2개 더 늘려 12개소로 확충하고 5억 6천만원을 들여 장애인 근로직업 시설을 영주, 안동, 청도 등지에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참여를 위한 지역불교계의 다양한 방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각종 대구교구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대구지역의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쏟으려 대구지역 장애인복지관 수탁에 응했으나 타종교단체의 방해로 여의치 않았다”며 “내년 경상지역

장애인복지관 수탁을 위해 지금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수탁에 성공해 지역불교계가 사회복지 참여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김천 노인복지관 수탁에 실패한 김천 직지사도 “이번 김천 장애인복지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올해는 꼭 수탁에 성공해 직지사가 지역사회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원규 기자 bak09@buddhapia.com

오대산 상원사 동종 재현 안동 도호부 관아터 설치

경북 안동시는 최근 안동역사를 조명하는 차원에서 시민성금을 모아 국보 제36호 오대산 상원사 동종을 재현하여 주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연내 3억 7천여만원을 들여 조선시대 안동문루(門樓)에 걸려 있었던 상원사 동종을 재현한 지름 1.6m, 높이 1.6m, 무게 2톤의 규모의 ‘옹부동종’을 안동 동부동 옛 안동도호부 관아터에 설치할 예정이다.

상원사 동종은 신라 성덕왕 24년(725)에 조성되어 조선 태종 때까지 경북 안동의 안동문루에 걸려있던 조선 예종 원년(1469)에 현재의 상원사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원규 기자



◁부산 삼광사가 1월28일 어려운 가족 100세대에 성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설날맞이 온정의 손길

삼광사, 100세대에 성금 전달

부산 삼광사 주지 도원스님은 1월 28일 부산시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100세대에 성금 1,000만원을 보시하고 이들을 따뜻하게 위로했다. 그 동안 삼광사는 추석이나 설날, 부처님 오신날, 동지 등 명절 때마다 부산시 거주 소년 소녀가장, 무연고 노인, 모자가정 등 불우이웃들을 선정, 연간 420세대에 4천3백 여 만원을 후원해

왔다. 또한 22일에는 부산교도소를 방문, 재소자에게 내의 100벌을 교화용으로 선물했다.

이 밖에도 삼광사의 봉사단체인 부일회, 관음회, 화합합창단, 전통요리연구회, 금강불교대학 봉사회 등이 설날을 앞둔 22일부터 25일까지 부산시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천미희 기자

인용사지·염불사지 발굴조사

경주문화재연, 3월~연말까지 3억 투입

정확한 사역과 성격 규명이 되지 않은 경주지역 신라시대 많은 절터를 대상으로 국립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사지 발굴계획을 발표했다.

경주문화재연구소는 오는 3월 초부터 연말까지 3억원의 발굴비를 투입, 경주시 인왕동의 인용사지와 경주 남산동의 염불사지를 발굴조사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1990년 경상북도문화재자료 제240호로 지정된 인용사지는 674년, 당나라에 인질로 잡힌 문무왕의 친동생 김인문을 기리기 위해 창건하였다고 삼국유사에 전한다. 반월성(半月城)의 남쪽인 인왕동의 서쪽 들판에 있는 절터는 대부분 훼손되어 건물터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탑지와 주춧돌 등이 남아 있어 전형적인 석탑 2기가 있었던 쌍탑식

가람 배치임을 알 수 있다.

또 염불사지는 정확한 창건시기 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절터의 위치는 양피사지(남산동 동서삼층석탑)에서 약 800m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남아있는 두개의 탑층 서탑은 제자리를 지키며 무너져 있고, 동탑은 1963년에 불국사역 앞으로 이전 되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박원규 기자

재가노인복지 본격추진

용호가정봉사원

파견사업소 개소

부산 용호복지관(관장 혜총)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이 본격화된다.

노인들을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펼치게 될 용호복지관 부설 용호가정봉사원파견사업소가 1월 29일 개소식을 갖고 2월 1일부터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본격화 했다. 이로써 용호동 관내의 80여 세대의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집으로 찾아오는 봉사원들에서 쾌대, 청소, 밀반찬 등

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노년의 외로움을 달랠 활동무도 갖게 됐다.

용호가정봉사원파견사업소는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가정봉사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봉사원을 모집하고 가사지원서비스, 개인 활동서비스, 우애서비스, 간병서비스 등과 요보호 대상에 대한 관리 및 상담을 펼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생계비 지원, 반찬지원, 김장지원, 명절 제수용품 보내기, 썰나누기, 방문간호, 약품제급, 생신상차리기, 경로관광, 서비스, 생일 카드 발송 등의 결연 서비스를 통해 노인들의 아들, 딸 노릇을 대신하게 된다.

천미희 기자

시명스님 독창회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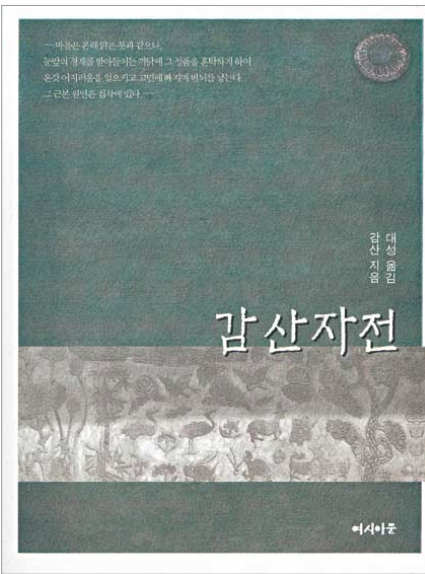
봉사단 발전기금 마련

‘내 맘의 강물’ 등 우리가곡, 오페라 아리아 등 16곡을 불러 관중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김무한씨와 부산불

교합창단 연합회가 찬조 출연했다. 특히 노숙자 쉼터 부산보현의 집 주최로 열린 이날 공연 수익금 전액은 조계종 자원봉사단 부산경남 지부의 봉사활동 활성화 기금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김산대사 수행일대기 한국 초역



▶ 신국판 변형 248쪽 값 8,000원

마땅히 가야 할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옛어른의 공부 길...

하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 이자전自傳의 원제는 『감산노인자서연보실록 感山老人自序年譜實錄』으로, 감산스님이 자신의 평생사平生事를 기술한 일종의 자서전이지만, 문학적 전기傳記라기보다는 年年 단위로 주요사건을 기록한 개인적인 행적의 기록에 가깝다.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 주로 저자 자신의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는 대목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시기의 이야기들은 주변 인물들과의 구체적인 대화나 사건 전개를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당시의 정황을 생동감있게 전해 주고 있다. 특히 젊은 시절 깨달음을 얻어 가는 이야기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

사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도(道)를 말할 수 없다. 대저 만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소유하지 않으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사물을 소유하는 자는 반드시 사물을 추구한다. 사물을 추구하는 자는 사람을 잊기 쉽다. 사람이 없는데 누구와 더불어 도를 말하겠는가? 사물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지은이 **감산** (感山, 1546~1623) 스님은 운서 주공, 자백 진가, 우의 지육과 더불어 명대의 4대 고승으로 일컬어진다. 12세에 출가하여 19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1581년에 오대산에서 무차회 無遮會를 열어 법을 설하여 5백여 명의 대중이 모였다. 1597년에는 조계曹溪에 머물면서 선禪을 부흥시켰다. 1616년에는 여산蘆山 오유봉에 법운선사法雲禪師를 건립했고, 1622년에 조계로 돌아와 다음 해에 입적했다.

율건이 **대성** (大晟) 스님은 1989년 순천 송광사로 출가했다. 『참선소지』와 『방편개시』(여시아문을 우리말로 옮겼으며 최근에는 라마나 마하르쉬관련서적들을 ‘아루나찰라 총서’ [탐구사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다.